

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26 Number 07 **7** 2018

오래된 지구를 위한 **어리석은 주장들**

Ancient Earth's Ugly Handmaiden

“오래된 지구의 기념비”의 첫 장은 그랜드 캐니언의 장엄함과 아름다움을 멋지게 표현하지만, 그것의 형성과 관련된 지질학적 사건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점이 생기게 하

는 부분들이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지질학자들은 느리고 점진적이며 반복적인 지질학적 과정을 믿기에 그랜드 캐니언의 형성 과정 중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랜드 캐니언의 모든 형성 과정이 평범하고 일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랜드 캐니언에는 그저 평범하거나 지루한 것이 아닌 다른 역사가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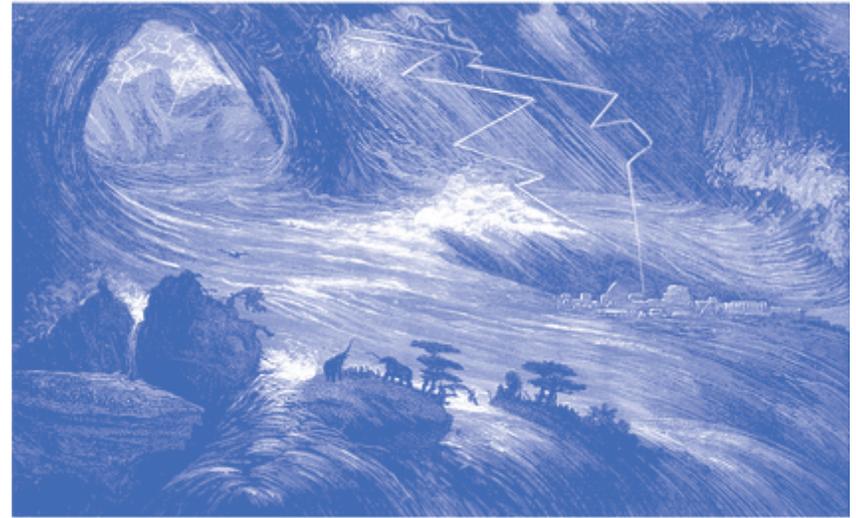
먼저 다음을 생각해보자. 해수면 위로 약 2,000 미터 이상 되는 높은 곳에 화석이 된 해양 생물이 발견되는 것이 “평범한” 것인가? 오늘날에 대륙을 덮고 있는 바다가 존재하는가? 화석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생물의 형태가 그렇게 세부적으로 보존되기 위해선 극한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생물이 이러한 조건에서 매몰되었다는 것이 과연 평범한 일인가? 그랜드 캐니언에서 보이는 지층이 그 넓은 지역에 수평으로 연결된다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다!² 그렇다면 그랜드 캐니언은 사실 전 지구적 규모의 어떤 사건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곳이 아닐까? 엄청나게 많은 양의 화석을 포함하는 그랜드 캐니언의

퇴적 지층 아래에는 확실히 침식된 흔적을 보여주는 표면이 존재한다. 현대에는 이러한 지질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어떠한 과정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저자들은 홍수 지질학을 뒷받침하는 놀라운 사실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 책의 목적은 사실 두 번째 장에 나와있다.

홍수 지질학을 무너뜨리기 위한 두 가지 주장인데, “그랜드 캐니언과 그 암석이 노아 홍수와 관련되었으며, 오래되지 않은 사건이라 생각하는 것은 바로 성경의 문자적 해석 때문”이라는 것과, “이러한 믿음은 노아 홍수를 전 지구적인 홍수 사건인 것처럼 이해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사실 홍수 지질학에 대한 견해는 잘못된 이해에서 기인한다. 대부분의 창조과학자들은 그랜드 캐니언이 홍수 이후에 형성된 호수에 갇혀있던 물이 터지며 형성된 것으로 믿는다. 하지만 진화론적 지질학 또한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믿음을 전제한다는 사실을 잊어서 안된다. 캐롤 힐 (Carol Hill)과 스테판 모셔 (Stephen Moshier)는 실제 홍수 지질학이 아닌 “그들이 상상해서 만든” 것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위해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시 그랜드 캐니언의 역사에 관해 잘못 지적된 내용이 등장한다. 홍수 지질학을 20세기에 나타난 시대적 현상 따위로 치부하기 위해 지질학의 과학적 탄



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니콜라스 스테노 (Nicolas Steno, 1638-1686)의 증언을 축소시켰다. 스테노는 젊은 지구를 명확하게 주장한 홍수 지질학자로서, 그는 홍수와 관련하여 성공적으로 지질 구조를 해석했다. 그는 계속해서 “전 지구적인 홍수”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모셔 (Moshier)나 힐 (Hill)이 사용했던 “성경에 나오는 격변들”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오래된 지구의 기념비”의 저자들이 주장한 것과는 다르게, 스테노의 지질학적 업적은 덴마크가 아닌 이탈리아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반(反) 아리스토텔레스 과학자이자, 개혁적인 과학자였던 다빈치 (Da Vinci)처럼 르네상스 철학자도 아니었다.³ 스테노의 중요한 논문인 프로드라마스 (Prodramus (1669))의 내용은 사실 현대 창조과학자인 스티븐 오스틴의 “격변의 기념비 (1994)”와 매우 유사하다. 두 책에서는 모두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지질학적 기록과 잘 일치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스테노의 업적을 보면 과학 역사에 있어 홍수 지질학의 공헌을 가볍게 취급하기 어렵다.

창세기 홍수가 단지 “지역적”인 부분에만 영향을 미쳤다는 그들의 주장은 문제의 핵심을 건드린다. 일 년간 일어난 지역적 홍수는 근대 세계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이며 사실상 불가능한 주장이다.⁴ 이러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면 반드시 지질학적인 증거를 남겨놓아야 하는데도 저자들은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는다. 방주가 여러 달 동안 지역적 홍수에도 정박하지 않고 떠 다녔어야 할 텐데 이러한 일은 성경에 기록된 방주의 크기를 고려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다. 지역적인 홍수가 사실이라면, 왜 방주가 물이 많은 하류 지역이 아

창세기 홍수가 단지 “지역적”인 부분에만 영향을 미쳤다는 그들의 주장은 문제의 핵심을 건드린다.

홍수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성경은

전 지구적 규모로 묘사하고, 홍수가 갑작스럽고 전 지구적인

심판이라는 사실도 반복적으로 서술한다.

닌 물이 흘러내리는 산 꼭대기에 정박하게 된 걸까? 배가 하류 방향인 바다 쪽으로 쓸려 내려 가야 하는 것 아닌가? 단지 지역적 홍수를 피하기 위해 그런 거대한 규모의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 아마도 “어리석음의 기념비”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역적 홍수를 피하기 위해 동물, 그리고 특히 새는 방주 없이 쉽게 피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홍수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성경은 전 지구적 규모로 묘사하고, 홍수가 갑작스럽고 전지구적인 심판이라는 사실도 반복적으로 서술한다.⁵ 지역적 홍수 이론은 단지 오랜 지구의 가정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

오랜 지구론은 단지 홍수 지질학 뿐 아니라 2000년 교회 역사의 기독교 학자들의 공통된 생각도 부정한다.⁶ 오랜 지구론은 찰스 라이엘 (Charles Lyell)이 정착시킨 점진론과, 완전히 해석적이고 검증이 불가능한 동위원소 측정 이론의 권위를 바탕으로 한다. 이 이론들의 과학적 정확성은 매우 의심스럽고, 이러한 부정확한 권위 위에서 마치 권위에 복종하는 종처럼 지역적 홍수 가설을 탄생시켰다. 다음 성경 구절을 생각해보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 물이 땅에 더욱 넘치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창 6:17, 7:19)

작은 언덕 뿐 아니라 높은 산까지 물에 잠겼다. 높은 산 뿐 아니라 하늘 아래 모든 것이 물에 잠겼다고 성경은 묘사한다. 몇몇의 동물만 죽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가 멸절된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역적 홍수를 묘사한 것이라면, “모두”나 “하늘아래 모든 것”이 “물에 잠겼다”는 말에 분명 지역적 홍수를 설명하는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오랜 지구론만 이러한 구절에 대해 무리한 해석을 해야만한다.⁷ 지역적 홍수설이 나온 이래 180년이란 시간 동안 몇몇 사람들은 지역적 홍수가 가장 분명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도를 잘 반영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도 베드로가 정확히 예언한 마지막 날에 생길 믿는 자들을 향한 조소와 같은 것에 불과하다.

두 번째 장의 저자인 힐과 모셔는 원래 에덴 동산의 위치가 티그리스와 유프

라테스 강이 모이는 곳 부근이었을 것이라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전 지구적인 홍수 해석을 비판한다. 그러나 이 주장이 성립하려면 이 강들의 현대와 고대의 배수량이 유사해야 하는데, 이는 아무리 “지역적 홍수”라 해도 일 년 동안 일어난 규모의 홍수로는 설명하기 매우 힘든 주장이다. 게다가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 네 줄기의 강이 갈라지는 것을 묘사하지만, 이들은 두 강이 모이는 곳이라 주장하며 치명적인 오류를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저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세기에 의도하신 것은 “과학적인 내용을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은 역사적 사건에 대해 시간과 공간적 역사를 전달하려는 하나님의 권위를 해치고 그들이 “과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추측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 (히브리서 4:12)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를 판단하는 것과 같은 꼴이다. 놀랍지 않은가!



Bill Hoesch
M.S. Geology

번역 / 조희천

참 조

1. 한 예로, 레드월 석회암 (Redwall Limestone)의 해백한 화석 (crinoid fossils)은 (E.D. McKee & R.G. Gutschick, History of the Redwall Limestone in Northern Arizona, Geological Society of America Memoir 114, 1969, p. 49) 매우 급격한 매몰되었던 형태를 보여준다. (“Echinoderm taphonomy, taphofacies, and lagerstätten,” C.E. Brett, et al., 1997, Paleontological Society Papers, 3:147-190)
2. Derek V. Ager, The Nature of the Stratigraphical Record, John Wiley, New York, 1973.
3. 스테노가 카톨릭교도가 된 시점은 그의 과학적 연구 경력의 끝과 거의 일치한다 (Martin J. S. Rudwick, The Meaning of Fossils: Episodes in the History of Palaeontolog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6, 49-100).
4. Danny Faulkner, “Physical difficulties with Hugh Ross’ local flood model,” Answers Research Journal 8:195,2015
5. Richard M. Davidson, “Biblical evidence for the universality of the Genesis Flood,” Origins 22(2):58-73 (1995).
6. 테르툴리아누스 (Tertullian, ~ 160-220)는 “전 지구적인 홍수가 ... 지역적 홍수였다고 주장했던 당대의 이교적 사상을 반박”하기 위해 높은 산에 있는 해양 화석을 사용했다. (Rudwick, op. cit., 36-37)
7. John Pye Smith in 1839 was first to propose a “local flood,” only nine years after Lyell’s Principles of Geology.

창조과학선교회

www.HisArk.com / hisark@gmail.com

결혼



진화론은 단지 과학책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화론은 개인의 삶과 사회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진화를 사실로 놓고 개인과 사회에 적용시키는 시도를 사회적 진화론(social evolutionism)이라고 한다. 이번 글은 여러 영향 가운데 결혼에 대하여 다루어 본다.

성경에서 결혼(marriage)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 제도이다. 결혼에 대한 그분의 마음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명확히 보여준다. 특별히 2장은 아담의 아내인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가 언급되어 있는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18절)고 하셨다. 그리고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 드디어 첫 결혼이 등장한 것이다! 이와 같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시

작하신 전적인 선물이다.

창세기 1장에는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good)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그러나 성경에 처음으로 “좋지 아니하니(not good)”가 등장하는데 바로 남자만이 창조되었을 때이다. 물론 여기서 ‘좋지 않다’는 표현이 나쁜(bad)이라는 의미일 리 없다.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는 인간의 범죄가 일어나기 이전에 나쁜 상황이 존재할 리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남자의 돕는 배필이 주어지는 창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남녀가 모두 창조되었을 때가 창조의 완벽한 종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남자에게 여자가, 여자에게 남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남자와 여자가 모두 창조된 후에 “심히 좋았다”(very good)라는 표현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completed)”를 통해 분명히 드러난다.

하나님께서서는 창조된 부부를 축복하셨으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도 이 둘에게 함께 하셨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부부가 하나님의 명령을 함께 수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결혼은 우리의 아이디어나 경험에서 등장한 것이 아니며,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조치도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심히 좋은 특별한 창조 작품이다.

인간의 범죄 후에도 하나님은 부부관계를 결코 무시하지 않으신다. 구원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창 3:15)라고 하시며 첫 결혼에서 나온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므로 복음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신다. 또한 홍수 심판 이후에도 노아 가족에게 창조 때와 동일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9:1)는 명령을 하셨고, 바벨탑 사건 때 언어를 혼돈하실 때조차도 “각기 언어와 종족(according to families)과 나라대로”(창 10:5) 가족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시게 함으로 함께 이동하도록 하셨다. 이와 같이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중에도 가족을 나누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이시며, 결혼과 가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임을 창세기 1-11장을 통해 일관되게 강조한다.

반면, 진화론적 사고에서 결혼은 어떤가?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에게 결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 진화의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등장한 문화의 산물로 여기며, 절대적 진리가 아니기에 문화의 흐름에 따라 언제든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많은 진화론자들은 직접적으로 자식을 낳았던 여성 중심인 모계사회로 시작하여 진화되는 변화과정을 거쳐 가부장적

사회로 발달했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앞서 다루었듯이 성경과는 대조적이다. 결혼은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이며 인간 창조와 함께 바로 시작되었다. 아담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끌어 오셨을 때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반기며 하나님의 의도 그대로 응답했다. 아담은 하와를 종으로 반긴 것도, 경쟁자로 여긴 것도 아니다. 또한 “돕는 배필(helper)”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지배자로 여기지도 않았다. 창세기 1장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와 같이 남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자는 이슬람에서 말하듯이 남자의 종으로써 위치도 아니고 여성 평등운동자들의 생각처럼 경쟁자의 위치도 아니다. 신약에서 언급한 교회, 그리스도, 남편, 아내와의 관계는 이를 충분히 뒷받침한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엡 5:24, 25)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며 이때 한 몸(one flesh)이 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라”(창 2:23)의 기록은 분명히 육체적인 하나뿐 아니라 영적, 감정적 수준까지 의미한다. 전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관계에서 등장한 것이 자녀이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성적 친밀함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번성케 한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자마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명령과 함께 복을 주셨다. 즉 결혼의 주된 이유와 복의 결과 중의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혼과 출산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한 몸이 되는 자연적 결과이다. 그리고 이는 주님으로부터 온 명령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하는 것이다. 죄가 들어온 이래로 육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경 말씀에 응해야 한다.

성경은 결혼이 하나님께로 온 신성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 질서를 떠나 이루어진 관계는 거룩한 모습이 아니며 죄라고 말한다. 또한 창세기 2장 23절에서 ‘남자와 아내’가 각각 단수의 남녀로 되어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그러므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관계를 떠나 이루어진 성적 관계는 하나님의 디자인에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죄악시 한다.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이 십계명에 등장하는 것은 결코 이상하지 않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 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히 13:4)와 같이 부부 이외의 음행은 엄격한 심판의 대상으로 취급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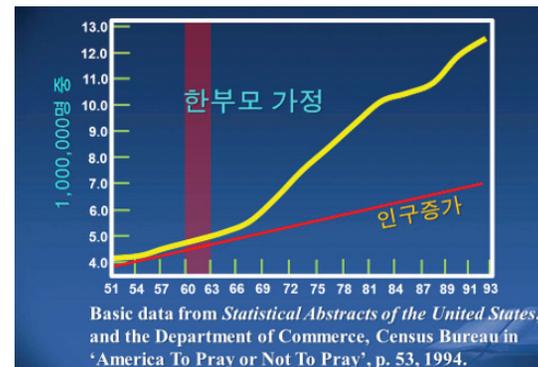
그러므로 간음, 일부다처, 동성에 등 모든 것은 죄이다. 구약에서 아브라함, 야곱, 다윗, 솔로몬 등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던 기록들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황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단지 허용하신 것이지 결코 기뻐하시는 상황은 아니다. 다처의 상황을 통해 생긴 어려움은 사라와 하갈, 라헬과 레아 등을 통해 성경에 잘 드러나 있다(실제로 이런 문제점은 다처를 해왔던 사회에 늘 일어나는 일이다). 남자와 여자의 인구 비율이 1:1인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결혼을 정의하신 창조의 질서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그러므로 신약에서는 감독과 집사의 조건으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딤후 3:2, 12; 딤후 1:6)를 반복 강조한 것이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도 창세기 1, 2장을 그대로 말씀하셨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마 19:4-6).



미국은 공립학교에서 1960년에 본격적으로 진화론을 다루기 시작했다. 그리고 1963년에 기도가 금지되었고, 이어 각 교실에서는 점차적으로 십계명이 사라졌다.

옆의 그래프는 미국에서 1960년도부터 이혼 숫자가 어떻게 증가하였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다른 한 그래프는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혼자 키우는 한부모 숫자의 증가를 보여준다. 이 그래프들은 진화론 교육이 단지 과학 교과서에 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님을 지시한다. 진화론에 영향 받은 사고는 개인의 삶과 사회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거룩한 작품인 결혼과 가정에 바로 변화를 주었다.





ACT News

아울러 이혼 증가는 먼저 깨어진 부모 간의 관계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전수 하는데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갔다. 다음 세대가 진화론 교육으로 성경에서 멀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교회까지 떠나는 더욱 악한 상황으로 접어든 것이다. 이제는 결혼에 대한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마저 사라지게 된 것이다.

성경, 특별히 창세기에서 언급된 결혼과 가족은 시대를 초월한 진리이다. 그러나 하나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 있다. 성경은 가정이 회복되어야 신앙을 전수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경적 신앙을 먼저 갖추어야 가정이 바르게 서며, 그 결과 신앙이 바르게 전수된다고 말한다. 결코 우리의 의지만으로 가정을 바르게 세울 수 없다. 우리 안에 성경에 대한 신뢰로 인해, 즉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바른 세계관이 세워지며, 이에 따라 모든 삶에 질서가 잡히고 바른 길로 가게 되며, 자녀들이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이 순서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전 9:9)



이재만 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구약학



기독교 미래연구소



아담은 하와에게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외에도 더 많은 표현들을 했을 것이다!

창조과학탐사

기독교미래연구소

지난 4월 30일-5월 5일 기독교미래연구소(소장 소재찬 목사)에서 52명의 목사님 내외분이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하여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행하신 증거들을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증거와 성경을 함께 보며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한 주였습니다. 지난 3월 이재만 회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8번의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이때 2세대도 참석하여 믿음의 확신에 대한 많은 간증들을 남겨놓았습니다. (간증 참고) 간증을 읽으시면, 지금 젊은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갈등과 또한 이것이 해결되었을 때의 감격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미래연구소는 목사님들은 이번이 네 번째 참석인데, 격년마다 이루어지던 것을 올해부터는 매년 진행하게 됩니다.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지난 5월 10-17일 8일간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에서 모집하는 창조과학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총 44명이 각처에서 모여 참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세도나-선셋분회구-그랜드 캐니언-브라이스 캐니언-자이언 캐니언-데스 밸리-알라바마 언덕-크 로울리 호수-세코이아 국립공원 등을 모두 순회하며 창조-홍수심판-바벨탑-빙하시대의 성경적 역사 뿐 아니라 포스트모더니즘과 뉴에이지의 이해를 통한 세계관까지 폭넓게 다루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탐 가운데 버스나 세미나실에서 많은 진지한 질문들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들은 답변을 얻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에서는 매년 두번씩 봄, 가을에 모집합니다. 이번이 13차였습니다. 대부분의 창탐은 교회나 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한국에서 공개로 모집하는 곳은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뿐입니다. 많은 분들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는 11월 10일(토) 하루 선한목자교회(담임목사 유기성)에서 이재만 선교사의 '창조과학콘서트' 세미나가 열립니다. 자녀들과 함께 많은 분들께서 참석할 수 있기 바랍니다. 문의는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로 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빠지는 창조과학탐사

오는 6월부터 8월말까지 방학기간 동안 창조과학탐사로 창조과학선교회가 아주 바쁩니다. 이재만 회장 뿐 아니라 김선옥, 김낙경 박사님 그리고 Bill Hoesch까지 인도자들이 출출동합니다. 대상도 교회, 대학교수, 신학생, 중고등학교, 2세 영어권, 가족, 청년부, 비지

니스맨 등 아주 다양합니다. 창탐을 이렇게 다양하고 바쁘게 사용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감사들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귀한 열매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미나

지난 5월 26일 이재만 선교사는 순회선교단에서 주관하는 복음학교에서 '선교와 세계관'이라는 주제로 '인류기원과 세계관'과 '타협의 거센바람'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진화론이 들어왔을 때 개인과 사회의 영향이 어떠한지 배우고, 그 위험성도 확인했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에 불고있는 타협이론들의 과학적 성경적 문제점과 함께 그 영향도 나누었습니다. 또한 이런 이론들은 이미 유럽과 미국 교회를 휩쓸고 지나갔으며, 그 결과 각 사회도 변하고 다음 세대로 교회를 떠나는 악영향을 주었음을 배웠습니다.



두란노 바이블칼리지

이 기사는 이재만 선교사님의 한국 방문 일정 중 기독교미래연구소에서 진행한 세계관 세미나 간증문입니다. 더 많은 간증문을 보시려면 홈페이지 www.hisark.com의 ACT 간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나는 신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해서 4년간의 공부를 마치고 3월 12일 군입대를 눈 앞에 두고 있다. 그 이전에는 과학, 특히 천문학과 지질학 등 지구과학 분야에 관심이 매우 지대했던 한 열심 있는 학생이기도 했다. 그 열정과 열심으로 여러 과학경시대회에서 입상하는 기쁨을 토하기도 했다. 그만큼 다른 사람이 모르는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인 신학을 통해 세상과는 구별된 특별한 배움의 자리에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기독교미래연구소에서 진행된 이번 창조과학 세미나에 대해서는 기대하는 바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 세상에서 말하는 창조과학은 허구이며 증명할 수 없는 근거로 점철된 유사 과학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고, 신학교와 교회에서조차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창조과학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자녀에게 주는 큰 선물이 라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강의가 이틀 동안 진행되는 동안 하나씩 하나씩 내 안의 무언가가 철저히 깨짐을 느꼈다. 의심은 사라지고 확신이 내 안에 들어서는 것을 느꼈다.

첫째 날, 내 안에 자리한 진화론의 패러다임이 산산이 부서졌다. 그 부서진 잔해는 경악스러울 정도로 거대했다. 내 기저에 자리한 진화론이 나의 사고를 지배하고 나의 영혼까지 지배해 어느새 하나님의 창조에 의심의 그림자가 나도 모르는 새에 짙게 드리워져 있던 것이다. 아무리 신학생이라고 해도 예외는 없었다. 또한 신학교라고 예외는 없었다. 진화론은 이 사회에 그야말로 뱃속 깊이 스며들어 어느새 창조를 부정하고 성경을 부정하고 있었다. 하나님을 배워야하는 신학교마저 '창세기 1장은 너무나도 먼 역사라서 기록된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른다.'고 말하고 가르치고 있었다.

작금의 현실 속, 세상에서 배웠던 고등학문에 심취했던 나에게 선교사님의 말 하나 하나가 충격이었고 전율이었다. 성경 속 말씀은 그저 상징이나 설화나 전설 따위가 아닌 사실과 역사 그 자체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우리만치 정확했으며 그 어느 학문보다 과학적이며 그 어느 역사서보다 정확한 사실이었다. 이제 더 이상 노아의 홍수는 하나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다. 살아있는 역사였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었다. 내 안에 자리한 진화론의 패러다임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했다.

둘째 날, 내 안에 자리한 내 자아가 산산이 부서졌다.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

력으로 펼치신 창조에 대해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내 죄악의 부끄러움으로 인해 나는 철저히 깨지고 말았다. 성경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성경 속 예수님을 느끼지 못했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은 깨지기 쉬운 의심 많은 알팍한 믿음이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하면서 그 이면에는 의심이 뱀처럼 파리를 틀고 내 중심에서 떠나지 않았다. 철저히 이종적인 나의 모습에,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보다 못한 것과 같은 자아를 보는 순간 나는 너무 괴로웠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 알아가기를 거부하고 싫어하고 떠나려 했던 모습을 마주하자 나의 마음은 산산이 찢어질 수밖에 없었다. 절규가 터져 나왔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선명해서 눈물이 나왔다.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과거의 내가 조각조각 깨지고 밟히며 눈물로 회개했다. 조금 과장해서 이전에 고백했던 회개는 회개도 아님을 느꼈다. 이제껏 내가 다른 영을 보고, 다른 복음을 알고, 다른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내게 다가와 너무도 비참해서 하나님을 향해 든 손조차도 부끄러워졌다. 그만큼 내 안에 일어났던 부서짐과 깨짐은 격렬했다. 내 안에 자리한 자아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무너졌다.

나의 더러운 죄를 쏟아내고, 내 안의 가장한 의심을 떨쳐내니 죄악으로 인한 나의 부끄러움이 변하기 시작했다. 눈물로 쏟아내던 회개가 바뀌어서 간절히 원하는 간구로 바뀌었다. 내가 잃어버리고 알지 못했던, 전지전능하시고 종으신 하나님을 간구하는 기도로 바뀌었다. 창조 속에 계신 예수님을 간구하는 기도가 나왔다. 그분을 만나고 싶었다.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그분을 만나고 싶었다. 그렇다. 창조 속에 예수님이 계셨다. 모세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었다. 온통 성경에서 예수님이 넘쳐났다. 너무나도 예수님이 선명했다. 태초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이 흘러나왔다. 예수님이 가득해서 성경 구석구석 어디 하나 계시지 않은 곳이 없었다.

이제 나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 없다.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예수님을 느낄 수 있다. 성경 속 찾을 수 없었던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 창세기는 설화이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우주에 행하신 놀라운 역사이자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거짓에 휘둘리지 않고 예수 안에 거하며 진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아버지가 그토록 설교할때마다 외쳤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고 목회자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어떤 의미로 부모님이 말씀하셨는지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신학교로 부르셨는지 막을 수 없는 은혜의 강물이 범람하게 되었다. 앞으로 행하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대한다. 내년 12월 군대를 제대하고 나면 미국에서 창조과학여행을 통해 생생한 현장을 보고 싶은 나의 간절한 마음이 분주해진다. 이 자리를 통해 창조주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은혜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기독교미래연구소와 소중한 강의를 열강해주신 이재만 선교사님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윤찬영(윤억석목사)

2018 ACT Schedule

6/26-7/3	창조과학탐사 (부산호산나교회), 이재만
7/2-5	창조과학탐사 (몽고메리늘푸른교회), 김낙경
7/9-13	창조과학탐사 (군산드림교회), 이재만
7/11-13	창조과학탐사 (샌디에고갈보리한인교회 EM), Bill Hoesch
7/16-22	창조과학탐사 (한동대교수), 이재만
7/26-29	창조과학탐사 (안산고등학교), 이재만
7/30-8/5	창조과학탐사 (인천동춘교회), 이재만
7/30-8/2	창조과학탐사 (뉴저지초대교회 EM), Bill Hoesch
8/4-6	창조과학탐사 (University Bible Fellowship), Bill Hoesch
8/9-16	창조과학탐사 (두암중앙교회), 이재만
8/16-25	창조과학탐사 (전주동은교회), 이재만
8/28-31	창조과학탐사(성남영도교회:양영승), 이재만
9/5-9/8	창조과학탐사(시애틀형제교회), 이재만
9/10-14	창조과학탐사(수원중앙침례교회), 이재만
9/20-26	창조과학탐사(안산동산교회), 이재만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